



#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9년 10월

본 자료는 전월(2019.9.1.~2019.9.30.) 제공되었던 주요 동향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게시물 보기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 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 목차

### **I. 주요 ICT 표준화 기구의 활동 동향**

(지역 및 국가별 표준화기구)

1. 일본 TTC, 청각장치 지침 등 접근성 표준 3건 제정 (8월 30일)
2. 유럽 ETSI, 최신 OSM(오픈소스마노) Release 6 시연 행사 개최 (9월 3일)
3. ITU 텔레콤 월드, 삶을 향상시키는 기술혁신을 강조하며 마무리 (9월 12일)

(포럼 및 컨소시엄)

4. 리눅스재단, 'Confidential Computing Consortium' 설립 추진 (8월 21일)
5. 8K 협회, 가정용 TV 성능 규격 발표 (8월 29일)
6. USB-IF, 썬더볼트를 통합한 USB4™ 규격 배포 (9월 3일)
7. W3C, 오디오 및 비디오 미디어 접근성을 위한 가이드 발간 (9월 11일)

### **II. 주요 국가의 ICT 표준화 정책 관련 동향**

1. EU 회원국, 5G 네트워크 보안 위험성 평가 완료 (7월 19일)
2. 일본 총무성, '20년 예산요구 발표- 양자암호/AI 표준화 등에 415.9억엔 (8월 30일)
3. 독일 DIN, IT 제품 안전을 위한 유럽의 해법 논의 (9월 5일)
4. 유럽연합, 차기 R&D (2021-2027) 파트너십 활동주제 공개검토 (9월 11일)
5. 중국, 현재 36,000건 이상의 국가표준 보유 (9월 12일)

## I. 주요 ICT 표준화 기구의 활동 동향

### 1. 일본 TTC, 청각장치 지침 등 접근성 표준 3건 제정 (8월 30일)

일본 TTC는 8월 29일 개최된 제122회 표준화 회의에서 다음의 3건의 표준을 제정하고, 이로서 TTC 표준은 총 895건임을 밝혔다.

- [표준번호: JT-H870] 안전한 수신 장치 / 시스템에 대한 지침(Guideline for safe-listening devices / systems)
- [표준번호: JT-F921] 시각 장애인을위한 음성 실내 및 실외 네트워크 네비게이션 시스템(Audio-based indoor and outdoor network navigation system for visually impaired)
- [표준번호: JT-F930] 멀티미디어 통신 릴레이 서비스(Multimedia Communication Relay Service)

본 공지와 함께 블로그를 통해 각 표준에 대한 설명을 함께 게재하였다. 블로그에 따르면, 위 3건의 표준은 모두 ITU SG16에서 제정한 표준을 준용한 것으로, 각각의 표준번호는 ITU-T 권고 H.870, F.921, F.930이다.

- JT-H870 : WHO와 ITU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난청방지 가이드라인
- JT-F921 :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지하철역 등에서 음성안내를 위한 설계 지침
- JT-F930 : 세계수화통역사협회(WASLI)와의 협력으로 청각 또는 음성 장애인을 위한 전화 릴레이 서비스의 요구사항 규정

※ 블로그 링크 : <https://www.ttc.or.jp/maedablog/20190830>

☞ (기사원문) <https://www.ttc.or.jp/topics/20190830>

### 2. ETSI, 최신 OSM(오픈소스마노) Release 6 시연 행사 개최 (9월 3일)

ETSI는 9월 9일~13일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ETSI 오픈소스마노 핵페스트(Hackfest)'를 개최하고, 최근 발표된 OSM Release 6\*를 시연할 예정이다.

\* OSM Release 6는 지난 6월 20일 ETSI의 OSG OSM(오픈소스그룹 오픈소스마노)에서 발표.엣지 플랫폼 지원 기능과 향상된 오케이트레이션 제어 기능을 제공

금번 행사를 통해, 신규 사용자는 기본 운영부터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및 closed loop 운영 같은 고급 기능까지 다양한 실무경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숙련된 사용자와 개발자는 OSM 원격실험 네트워크를 통해 복잡한 예제 작성, OSM 코드의 실험 및 조정, 테스트 및 새로운 기능을 시연할 수 있다.

아울러, 5G 사용 사례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핵페스트 기간 중인 9월 11일 "5G Day"를 개최한다. 가상현실 및 라이브 초고화질 비디오 전송과 같은 고급 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차량 네트워크를 통한 여러 가상화된 서비스 기능 적용 등 자동차 산업에 대한 주제도 다룰 예정이다.

[참고] OSG OSM(Open Source Group Open Source MANO)

ETSI의 NFV(네트워크기능가상화) 작업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 2016년 10월에 설립됨. 특히 ETSI의 ISG NFV에서 개발하는 아키텍처 프레임 규격과 오케스트레이터 및 VNF 관리 규격을 통칭하는 'MANO' 기술구현과 상용화에 필요한 오픈소스를 개발

ETSI의 일반적인 기술위원회와는 달리 ISG(Industry Specification Group)의 운영 방식을 따르되 그룹규격은 개발하지 않고 보고서만 발간. 보고서는 ISG NFV의 그룹규격과 직접 관련된 코드는 포함하지 않음

OSM Release 발표와 함께 핵페스트(Hackfest)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행사는 7차임. 참여기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설립시 8개 기업에서 현재는 51개 정회원(Members)과 79개 참관회원(Participants)이 참여 중. ETSI 회원사일 경우 정회원, 회원사가 아닐 경우 참관회원으로 구분되며, 별도의 동의서를 통해 회의 참석이 가능함. 국내는 KT와 SK텔레콤이 참관회원으로 활동 중 (참고: <https://osm.etsi.org/>)

<https://www.etsi.org/newsroom/press-releases/1637-2019-09-etsi-demonstrates-latest-osm-release-six-gain-hands-on-experience-at-the-etsi-osm-hackfest>

### 3. ITU 텔레콤 월드, 삶을 향상시키는 기술혁신을 강조하며 마무리 (9월 12일)

ITU 텔레콤 월드 2019는 9월 9일~12일 동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어, 125개국 약 4000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세대이동통신기술(5G) 및 기타 대용량회선 구축에 대한 장관 회의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적절한 비용으로 모바일 광대역 통신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국가마다 자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
-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규제기관 간의 대화에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존 및 혁신적인 지상/우주 전파서비스를 혼합하여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과 인구가 적은 지역에 연결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 최신 무선통신기술 세션에서는 저렴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고고도통신시스템(HAPS), 소형위성,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이 제안됨
- 최고기술책임자(CTO) 회의에서는 2020년 예상되는 "5G" 정의와 관련하여, IMT-2020 준비에 대해 토론
- '스마트 ABC' 프로그램에서는 인공지능, 은행, 스마트시티 간 공통의 최신기술 공유
- '스마트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 국제 표준이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을 논의
- ITU는 위성통신기업과 다양한 인도주의단체에서 수립한 "Crisis Connectivity Charter"에 합류하여 긴급통신을 통한 재난 대응 개선과 준비를 강화기로 함. 또한, Cisco와 파트너십을 맺고 "Digital Transformation Initiative"를 착수, 디지털 변환을 위한 교육 등을 시행 예정
- 금번 행사에서는 ITU Innovation Challenge의 우승자와 24명의 여성기업가들로 구성된 'EQUALS' 대표단을 처음으로 운영, 지역 사회와 전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

이밖에, 'ITU 텔레콤 월드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하였고, 참고로, 기업 부문에서는 '의미있는 연결 솔루션(Meaningful Connectivity Solutions)' 으로 재난대응에 특화된 KT의 5G 스카이스이십이 수상하였다.

(기사원문) <https://www.itu.int/en/mediacentre/Pages/2019-PR15.aspx>

#### 4. 리눅스재단, 'Confidential Computing Consortium' 설립 추진 (8월 21일)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은 컨피덴셜 컴퓨팅 활용 촉진을 위한 커뮤니티로 'Confidential Computing Consortium' 설립 의사를 발표하였다.

본 컨소시엄은 차세대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에서의 데이터 처리의 신뢰성과 보안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알리바바, 암(Arm), 바이두, 구글 클라우드,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레드햇, 스위스콤, 텐센트가 참여하여 오픈소스 기술 및 표준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컨피덴셜 컴퓨팅은 암호화된 데이터가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에 노출되지 않고 메모리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사용자에게 더 큰 제어 및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컨소시엄은 컨피덴셜 컴퓨팅 지원을 위해 인텔의 SGX, 마이크로소프트의 Open Enclave SDK, 레드햇 Enarx 등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 (기사원문) <https://www.linuxfoundation.org/press-release/2019/08/>

#### 5. 8K 협회, 가정용 TV 성능 규격 발표 (8월 29일)

8K 협회\*(8K Association)는 8K TV의 주요 성능 기준을 정의한 규격을 발표하였다.

\* 8K : 3,300만 픽셀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콘텐츠 제작, 배포 및 TV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최고 해상도 표준으로, UHD/4K 표준보다 4배 더 선명

\* 8K 협회 : 8K 콘텐츠 및 기술 생태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업체 간 협력체로 올해 1월 AUO, 하이센스, 파나소닉, 삼성전자, TCL의 5개 회원사로 출발, 현재 삼성디스플레이, 텐센트, 엑스페리 등이 참여하면서 16개 회원사로 확대

본 규격은 8K 입력매개변수(비트 심도, 프레임 속도, 채도 서브 샘플링), 디스플레이 성능(해상도, 최대 밝기, 블랙 레벨, 색역, 화이트 포인트) 및 인터페이스 및 미디어포맷(고해상도,코덱)을 포함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상도 : 7680 x 4320 픽셀
- 입력 프레임 속도 : 초당 24p, 30p 및 60p 프레임
- 디스플레이 휘도(최대 밝기) : 600 니트 이상
- 코덱(영상압축방식) : HEVC
- 인터페이스 : HDMI 2.1

☞ (기사원문) <https://8kassociation.com/8k-association-announces-performance-specification-for-consumer-tvs/>

## 6. USB-IF, 썬더볼트를 통합한 USB4™ 규격 배포 (9월 3일)

USB IF(Implementers Forum)은 기존 USB 3.2 및 USB 2.0 아키텍처를 보완한 차세대 USB 아키텍처인 USB4™ 규격을 발표하였다.

금번 USB4 아키텍처는 인텔사에서 제공한 썬더볼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며, USB의 최대 전체대역폭을 2배로 늘리고, 동시에 여러 데이터 및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기존 USB Type-C 케이블을 사용한 2레인 작동, 최대 40Gbps의 속도
- 최대 전체대역폭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다중 데이터 및 디스플레이 프로토콜
- 하위 버전인 USB 3.2, USB 2.0 및 썬더볼트3과의 호환성

\* 썬더볼트(Thunderbolt) : 인텔과 애플이 함께 개발한 고속 데이터 전송 및 연결을 위한 입출력 인터페이스 규격 [출처: TTA 정보통신용어사전/최신 ICT 시사상식 2015, <http://terms.tta.or.kr> ]

금번 규격은 2019년 3월 USB4 규격 개발을 발표한 이후 공식 배포로서, [www.usb.org](http://www.usb.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기사원문) [https://www.usb.org/sites/default/files/2019-09/USB-IF\\_USB4%20spec%20announcement\\_FINAL.pdf](https://www.usb.org/sites/default/files/2019-09/USB-IF_USB4%20spec%20announcement_FINAL.pdf)

## 7. W3C, 오디오 및 비디오 미디어 접근성을 위한 가이드 발간 (9월 11일)

W3C의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eb Accessibility Initiative: WAI)의 교육홍보 작업반 (EOWG\*)에서는 오디오 및 비디오의 미디어접근성 제작과 이해를 돕는 웹페이지를 발행하였다. (<https://www.w3.org/WAI/media/av/>)

\* EOWG : Education and Outreach Working Group

자막/부제목, 시각정보에 대한 오디오 설명, 비디오 정보의 설명(텍스트화), 미디어 수화 제작과 이해를 돕는 자료를 수록하고, 새로운 비디오 제작 및 미디어 플레이어 접근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설계와 관리 섹션에서는 외주 및 자체 제작 시 고려할 사항을 다룬다.

☞ (기사원문) <https://www.w3.org/blog/news/archives/7939>

## II. 주요 국가의 ICT 표준화 관련 정책 동향

### 1. EU 회원국, 5G 네트워크 보안 위험성 평가 완료 (7월 19일)

EU의 24개 회원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G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국가 위험성 평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고, 다음 단계인 EU 전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5G 네트워크는 미래에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형성한다. 여기에는 에너지, 운송, 금융, 의료와 같은 중요한 부문을 비롯하여 긴밀한 정보를 전달하고 보안 시스템을 지원하는 산업제어시스템도 포함하여, 수십억 개의 객체와 시스템이 연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9년 3월 26일 5G 네트워크의 사이버보안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 위험성 평가 수행과 국가적 측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국가 위험성 평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5G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협 및 행위자
- 5G 네트워크 구성 요소 및 기능, 기타 자산의 민감도
- 5G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등 기술적이거나 기타 다른 유형의 취약점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취약점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10월 1일까지 회원국, 집행위원회, EU사이버보안청(ENISA)은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EU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준비할 예정. 이와 함께 ENISA는 추가적으로 5G 위협 환경을 분석 수행
- 2019년 12월 31일까지 NIS협력그룹\*은 위의 위험성 평가에서 파악된 위험요소들을 다루기 위한 조치 도구를 개발하여 동의를 받을 예정

\*NIS Cooperation Group : 사이버보안을 위한 EU 회원국간 정보 교환 및 협력을 위해 NIS Directive(네트워크와 정보 시스템의 보안에 대한 지침)에 따라 2016년 설립된 단체

- 아울러, 금번 6월말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이 발효된 이후 집행위원회와 ENISA는 EU 차원의 인증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예정임. 회원국은 5G 네트워크와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 체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집행위원회 및 ENISA와의 협력이 권장됨
- 2020년 10월 1일까지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와 함께 시행 조치에 대한 결과 평가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하며, 유럽의 위험성 평가 조정을 고려해야 함

☞ (기사원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19\\_4266](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19_4266)

**2. 일본 총무성, '20년 예산요구 발표- 양자암호/AI 표준화 등에 415.9억엔 (8월 30일)**

일본 총무성은 2020년 예산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전년도(16조 6,295억엔) 대비 5,633억엔이 증액된 17조 1,928억엔을 요구하였다.

위 예산은 크게 5개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ICT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Society5.0 시대의 지역 사회' 항목 내 '양자 암호 네트워크 고도화, AI·자연 언어 처리 등의 기술 개발·표준화'에서 415.9억엔(약 4,765억원)을 요구하였다.

\* 항목: I. 도쿄 집중화 완화 및 지역 활성화, II. Society5.0 시대의 지역 사회, III. 안정적인 지방 재무행정기반 확보, IV. 재난예방·관리/복구, V.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확보

'Society5.0 시대의 지역 사회' 예산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 Society5.0 시대의 지역 사회	요구 예산
• Society5.0을 지원하는 ICT 인프라 정비	1,947.2 억엔+사향요구
• 산업의 고도화·신규 산업의 창출	609.8 억엔
(1)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5G의 활용 추진	70.1 억엔(신규)
(2) 캐시리스화·정보 은행 등을 통한 데이터 유통·활용의 추진	7.5 억엔
(3) 양자암호 네트워크 고도화, AI·자연언어처리 등의 기술개발·표준화 <small>*괄호안은 참고 내용</small>	415.9 억엔
(a) 방송용 주파수의 활용	81.0 억엔의 내수
(b) 양자암호 기술 개발 추진	15.3 억엔 (신규)
(c) 위성 통신의 양자암호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국제표준 획득)	3.6 억엔
(d) 최첨단의 정보 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연구 개발 추진	11.0 억엔
(e) AI에 의한 네트워크 자동 최적제어 기술 등의 연구개발 추진	7.0 억엔
(f) 다국어 번역 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개발	20.0 억엔 (신규)
(g) 고급 대화에이전트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 (오픈소스공개)	1.4 억엔
(h) 공장의 무선화 추진 (국제표준화 동시 실시)	125.9 억엔의 내수
(i) 전략적 국제 표준화 추진 (국제공동연구개발 및 표준화)	38.4 억엔의 내수
(j) 기초·기반 연구개발 등의 추진 (NICT 운영비 지원)	337.7 억엔
(4) 다국어 번역 보급 추진	2.1 억엔
(5) 지역 10,000 프로젝트 분산형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14.5 억엔
(6) 경쟁적 자금을 통한 혁신 창출	24.5 억엔
(7) 새로운 전파이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이용 환경의 구축	89.8 억엔
• 해외 진출·국제 정책 연계	114.9 억엔
• 풍부한 라이프스타일 생활 지원	36.4 억엔
• 사이버 보안 강화, ICT의 안심 안전 확보	175.8 억엔
• 디지털정부를 통한 행정 고도화 및 효율화	159.2 억엔
• Society5.0을 지원하는 인재 육성	7.3 억엔
• 다양한 근무 형태의 실현	4.2 억엔

※ 내수(内数): 어떤 통계에 조건을 부가한 경우의 부분 수치로 원래의 수치에 대하여 내수로 지칭 (KISTEP 'S&T GPS' 내용 중 발췌)

☞ (기사원문)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kanbo04\\_02000120.html](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kanbo04_02000120.html)

### 3. 독일 DIN, IT 제품 안전을 위한 유럽의 해법 논의 (9월 5일)

독일 DIN은 9월 5일 IT 제품 안전과 품질 보장을 논의하는 'KITS 컨퍼런스 2019'를 개최하였다. 이해관계자 120여명이 참여하여 미래의 IT 보안에 필요한 솔루션을 논의하였다.

\* KITS(IT Security Coordination Office) : DIN의 정책자문을 담당하는 'FOCUS.ICT' 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로,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의 지원을 받아 IT 보안 표준 관련 자문과 의견 조율을 위해 설립. 'IT 보안 네비게이터'를 통해 보안 관련 표준 정보 제공 (<https://www.security-standards.de/ITSecurityGrid.html>)

회의의 주요 주제는 독일 정부에서 준비 중인 "IT 보안법 2.0"으로, 연방 정부는 IT 보안 레이블을 도입하여 위험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의 평가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에 대해 DIN의 CEO는 유럽 차원의 솔루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회의에 참여한 업계 및 협회 대표들은 디지털 세계 속에서 소비자와 독일 경제를 보호하고, 세계 시장 접근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제 규범과 표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 <https://www.din.de/de/din-und-seine-partner/presse/mitteilungen/it-produktsicherheit-braucht-europaeische-loesungen-345412>

### 4. 유럽연합, 차기 R&D (2021-2027) 파트너십 활동주제 공개검토 (9월 11일)

유럽연합은 차기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 (2021-2027)에서 운영할 파트너십\*의 활동 주제(안)로 아래의 12건에 대한 공개검토를 시작하였다.

\*Horizon Europe 파트너십: 민간과 공공 부문의 공동 연구 형태로, Co-programmed European Partnership, Co-funded European Partnerships, Institutionalised European Partnerships의 3개 형태

- 감염성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EU-아프리카 건강 연구 파트너십
- 혁신적인 건강 이니셔티브
- 주요 디지털 기술
- 스마트 네트워크 및 서비스
- 유럽 계측
- 유럽의 철도 시스템 혁신
- 통합 항공 교통 관리
- 깨끗한 항공 (탈탄소 항공기술 개발 등)
- 원형 바이오 기반 유럽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 등)
- 깨끗한 수소
- 안전하고 자동화된 도로 운송
- 혁신적인 중소기업

11월 6일까지 설문으로 참여 가능하며,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7월 시행된 1차 공개검토 결과와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9월 26일 개최되는 "유럽 연구와 혁신의 날" 세션에서도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https://ec.europa.eu/info/news/have-your-say-next-generation-ambitious-research-and-innovation-partnerships-2019-sep-11\\_en](https://ec.europa.eu/info/news/have-your-say-next-generation-ambitious-research-and-innovation-partnerships-2019-sep-11_en)

## 5. 중국, 현재 36,000건 이상의 국가표준 보유 (9월 12일)

중국 국무원 정보국은 신중국(新中國) 수립 70주년을 맞아, 표준화 개혁과 성과에 관한 기자 회견을 가졌다. 지난 70년 동안 중국의 표준화 시스템과 규칙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표준의 수와 품질이 크게 향상되어, 현재 36,877건의 국가 표준, 62,262건의 산업 표준, 37,818건의 지방 표준, 9,790건의 그룹 표준이 있으며, 기업 자체 표준은 114만건 이상이 있다.

표준화를 위해 총 1,321개의 전문 및 기술(산하)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약 50,00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기구 내 89개의 사무국을 수행하고, 583건의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였다. 특히,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에는 약 5,000명의 중국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또한, 중국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국제표준은 1만건 이상이며, 반대로, 중국의 국제표준 제안은 약 20%의 성장률을 보이며 국제표준 제안에 있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2015년 3월 국무원은 "표준화 체계 개선을 위한 개혁 방안(深化标准化工作改革方案)"를 통해, 표준화에 있어서의 시장 역할 강화와 정부의 경제 개혁 대응 등을 위한 6가지 개혁 조치를 제시한 바 있다. 2020년까지 2년 단위 3단계 추진 일정으로, 현재는 3단계로서 새로운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밝혔다.

국가시장감독및관리표준혁신부의 Cui Gang에 따르면, 표준은 국제 기술 교류와 경제 및 무역 협력의 기술 기반으로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52개 국가 및 지역의 국제/국가 표준화기구와 92건의 표준화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표준 공동 구축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 자원, 화학 산업, 철강, 야금, 건축 자재, 소비재 등의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을 580개 언어로 발행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대일로 공동 구축 국가 간의 표준화 교류와 협력은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사원문) <http://www.chinanewsportal.com/news/2019/0912/0721/5d798956234dfcfa010e8563>